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3



Contents



※ 2026.08.12.(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8.05.~2026.08.11.)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해남군, 만대산 탄소중립 특화림 조성…5년간 20억 투입(2026.08.07)	1
– 진천군, 신재생에너지·ESS 확대로 탄소중립 거점 도약(2026.08.10)	1
– 광명시, 종이영수증 감축 '기후의병' 소상공인 확산 협약(2026.08.10)	2
– 광명시, 시민 참여 평생학습원 '탄소중립 정원' 조성(2026.08.06)	2
– 의성군,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 이벤트 운영(2026.08.06)	3
– 오산시, 폐기물 업체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2026.08.06)	4
– 안성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1)	4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다회용 앞치마로 탄소중립 실천(2026.08.05)	5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의 날 소등 챌린지 전개(2026.08.11)	5
■ AI 분야	6
– 국방 생성형 AI, 주적 질문 답변 오류…보완 필요 지적(2026.08.05)	6
– 국민연금, 미 블랙리스트 중국 AI장비기업 IPO 투자 확인(2026.08.11)	7
– 충북교육청, AI·지역 인프라 결합 방학 돌봄 공백 대응(2026.08.06)	7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8

▪ 탄소중립 분야 8

- 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전력수요 대응 에너지 기술 토론회(2026.08.07)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9

▪ 탄소중립 분야 9

- 삼정KPMG, 탄소중립 산업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 발표(2026.08.05)9
- 키움증권, 걸음 기부로 탄소 6만7000kg 감축(2026.08.10)10

▪ AI 분야 10

- SKT, SK하이닉스 AI 투자법인 출자...재무 부담 최소화(2026.08.05)10
- KAIST, AI 활용 탄소 포집·수소 저장 소재 설계 기술 개발(2026.08.11)11
- 부산대-네이버클라우드, 동남권 AI 인프라 허브 협력(2026.08.05)12
- 중국 AI 기업, 가성비 전략 전환...이용자 가격 부담 확대(2026.08.11)12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해남군, 만대산 탄소중립 특화림 조성...5년간 20억 투입(2026.08.0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도유림을 활용해 옥천면 신계리·영춘리·영신리 일원 약 100ha 면적에 탄소중립과 산림복지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만대산 탄소중립 특화림을 조성하며, 사업기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약 20억 8000만원을 투입해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산림자원 기반 구축을 추진 - 생장이 빠른 백합나무의 탄소흡수원·경제림 가치와 사계절 푸른 숲을 유지하며 치유 기능과 지속적인 탄소저장 역할을 수행하는 편백의 장점을 결합해 탄소저감과 산림치유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 산림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25ha 규모의 조림을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추가로 25ha를 조성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전개 - 향후 등산로 및 산책로와 연계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확대해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대표 산림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미래형 산림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군의 구상에 따라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복지 기능 강화의 병행을 전망
	□ 진천군, 신재생에너지·ESS 확대로 탄소중립 거점 도약(2026.08.10) - 진천군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거진천 전통시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는 등 지역 곳곳에 분산형 에너지 기반을 넓히며, 가정과 건물의 전력자립 기반 확대와 외부 전력 의존도 완화,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군민체감형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추진 -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1천700만 원을 들여 44곳에 132kW, 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1천900만 원을 투입해 187kW를 확충하고, 총사업비 26억3천여만 원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지역 253곳에 태양광 214곳 838kW, 지열 37곳 647.5kW 등 1천495.5kW를 새로 구축해 올해 총 1천814.5kW 규모의 신규설비를 확보 - 총사업비 13억8천만 원을 들인 전통시장 1MW급 ESS와 에너지관리 플랫폼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저장해 전력사용 집중 시간대 부담을 줄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며, 상인들이 점포별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ESS 기반 분산에너지 사업의 지속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거점 도약을 전망
	□ 광명시, 종이영수증 감축 '기후의병' 소상공인 확산 협약(2026.08.10) - 광명시가 10일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상인회총연합회와 '기후의병 가맹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영수증 발급 매장 확대에 협력하기로 하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소상공인을 참여시켜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생활형 탄소중립 확산 전략을 추진 - 두 단체는 회원 소상공인에게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을 알리고 참여 매장을 늘리는 역할을 맡으며, 시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포스(POS) 시스템 연동비와 올해 말까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모두 2000곳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무상 설치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과 전자영수증을 연계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 시민이 텀블러 사용이나 장바구니 이용 등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뒤 가맹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실적이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시민의 별도 인증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친환경 매장 이미지를 제공하며, 소비가 이뤄지는 지역 상권 자체를 탄소중립 실천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참여 확대를 기대
	□ 광명시, 시민 참여 평생학습원 '탄소중립 정원' 조성(2026.08.06) - 경기 광명시가 광명자치대학 정원도시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원마실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음 달까지 평생학습원 실내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며, 기수별 졸업과제로 조성했던 평생학습원 정원을 시민이 함께 가꾸는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발전시켜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생활 속 정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 - 2023년 생태정원학과 졸업생을 비롯해 2024~2025년 졸업생과 올해 정원도시학과 재학생이 참여해 평생학습원 2층 화단과 실내 베이스캠프 공간을 직접 기획·조성하고, 기존 식물을 재활용하며 다양한 식생을 활용한 미니 생태숲을 만들어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학습공간으로 꾸미는 한편 시민이 직접 식재와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공동체 형성을 지향 - 평생학습원 2층 실내 화단에 이어 다음 달 1층 카페 앞 그늘정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이후 식물클리닉, 정원아카이브, 정원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생학습원을 정원을 매개로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확대하며,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져 지역 변화를 이끄는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모델의 확대를 도모
	□ 의성군,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 이벤트 운영(2026.08.06) - 의성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해 8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한 군민에게 친환경 생활용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군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시책을 추진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 2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세대주·세대원)과 상업시설 사용자가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군청 환경축산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참여 가능 - 네이버밴드 '넷제로의성:)우리동네탄소중립'과 의성톡톡, 군 공식 SNS에서 이벤트 관련 정보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제공하며, 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유철 의성군수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등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확산을 기대
	□ 오산시, 폐기물 업체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2026.08.06) - 경기 오산시가 지난 5일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이알에스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시민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산상공회의소 기업인 조찬세미나를 통해 안내한 교육 지원사업이 실제 기업 신청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 - 교육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차량 운행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 경기도와 오산시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공회전과 급가속·급제동 줄이기, 차량 정기 점검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과 함께 폭염 등 기후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안내 - 야외 근무자가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으로 현장 수요에 부응했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대상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기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지역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
	□ 안성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1) - 안성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오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히며,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로서 전문 정비사의 현장 방문 정비를 통해 일상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을 추진 -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기어 조정과 타이어, 브레이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등 기본 점검은 물론 가벼운 수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이 부품비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전문 정비사가 공동주택과 면 지역 등 현장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생활밀착형 정비 서비스로 구성 - 정비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순회 정비의 세부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찾아가는 방식의 무료 점검·수리 지원으로 자전거 이용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일상 속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대와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다회용 앞치마로 탄소중립 실천(2026.08.05)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월례회의에서 '푸룽푸룽 환경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다회용 앞치마 '롤프론(Rollpron)' 착용 실천 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확산해 교직원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환경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 - 교육지원청은 올해 전입한 직원들에게 다회용 앞치마 롤프론을 전달하고 환경보호 실천 동참을 다짐했으며,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고 돌돌 말아 보관할 수 있는 롤프론을 식사나 각종 활동에서 일회용 앞치마 대신 사용해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가운데 직원들이 이를 착용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공유 - 이해경 교육장은 탄소중립이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지속 추진 의사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은 환경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서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자원순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
지방기관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의 날 소등 챌린지 전개(2026.08.11)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최병수) 강원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에너지의 날(8월 22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일)을 계기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지구를 위한 쉬는 시간, 컴퓨터 OFF·소등' 챌린지를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전개하며, 지난해 시작해 올해로 2년째를 맞는 강원지역 공공기관 참여형 실천 캠페인을 추진 - 강원지역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컴퓨터 전원과 사무실 전등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원에 따르면 컴퓨터 전원을 1시간 끌 경우 1대당 약 0.0023kgCO₂, 소등할 경우 1㎡당 1시간 기준 약 0.0023kgCO₂의 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 연구원은 챌린지 종료 후 기관별 참여 인원과 소등 면적 등을 취합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지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점심시간 소등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강원지역 전반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국방 생성형 AI, 주적 질문 답변 오류…보완 필요 지적(2026.08.05)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자체 개발·운용 중인 국방 생성형 AI가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기본적인 안보 질문에 정치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ERROR' 등 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 내부 AI 서비스의 안보관 반영 미흡을 제기 - 국방부는 2024년부터 국방 생성형 AI 'GeDAI'를 군 자체 인력으로 개발·운용 중이고 육군은 'Arvis', 공군은 'AiRWARDS'를 각각 운영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자원과 각 군 특성·데이터를 반영해 훈령·규정, 교리·교범 등 군사 전문자료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업무에 활용하는 검색증강생성 기술과 사용자 데이터 직접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로 구축 - 군이 AI를 활용한 정신전력교육·안보 교육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본 안보 질문을 정치적 사안으로 분류하거나 오류를 출력하는 것은 장병 대적관과 안보관 형성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며, 국방부는 군 생성형 AI 서비스가 완성형이 아니고 군사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
중앙기관	□ 국민연금, 미 블랙리스트 중국 AI장비기업 IPO 투자 확인(2026.08.11) - 국민연금이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된 중국군사기업(CMC) 명단에 오른 중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장비업체 중지이노라이트의 홍콩증시 기업공개(IPO)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국민 노후자산이 지정학적·규제 위험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입된 CMC 지정 기업 첫 신규 투자 사례로 그 배경에 주목 -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블랙록 산하 펀드 등과 함께 AI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 생산기업 중지이노라이트에 총 2억5000만달러(약 3543억7500만원) 규모의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 매출 비중이 61.7%에 이르는 이 기업은 투자계약 42일 전 미국 전쟁부가 CMC로 지정한 상태에서 7월 30일 홍콩 증시에 상장 - 국민연금 투자 물량은 2027년 1월 29일까지 매매가 제한되는 보호예수 대상이며, 원래 감시 대상에 가까웠던 CMC 명단이 6월부터 전쟁부와 지정 기업 간 직접 계약 금지 등 실효적 규제로 격상된 국면에서 이뤄진 투자라는 점에서 국민 노후자산의 지정학적·규제 위험 노출 우려와 미중 갈등 수위 고조 평가를 시사
지방기관	□ 충북교육청, AI·지역 인프라 결합 방학 돌봄 공백 대응(2026.08.06) - 충청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때마다 반복되던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풀기 위해 학교와 거점형 방과후·돌봄센터,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충북 나우 방과후·돌봄' 사업을 도내 전역에서 본격 가동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차단하고 미래역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량을 키우도록 AI와 디지털 미래교육, 지역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맞춤형 방학 돌봄을 전개 - 청주·충주·제천 거점형 방과후·돌봄센터가 하루 최대 320명을 수용하고 통학 버스 운행과 급·간식 제공을 갖춘 가운데, 청주 경덕초 로봇과학·AI드로잉 등 프로그램에 107명, 충주 용산초 한국교통대학교 연계 자율주행·3D프린터 등 7개 강좌에 281명이 신청하고 제천 의림초 AI 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 주간 이용 인원이 329명에 달하는 등 참여 확산 -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까지 협력한 11개 시·군 '몸튼튼 마음튼튼' 프로그램에 총 1160명이 참여하고, 도내 256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참여 학생이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총 2만 2327명을 기록하며 이 중 9524명에게 급·간식이 무상 지원되는 등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모델의 성과를 확인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전력수요 대응 에너지 기술 토론회(2026.08.07) - (재)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6일 온·오프라인으로 '제9회 톡톡_TALK, TALK!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행사를 개최하고, 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 - 행사는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진욱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교수와 강진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첫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이 높은 탄소배출 저감 효과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까지 개선된 가운데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을 조명 - 전문가와 시민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슈를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자리 잡은 프로그램으로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ESS 등 차세대 기술과 자원순환, 에너지 안보, CCUS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하며, 제한된 에너지 인프라 여건에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 및 전력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한 공론화 지속을 기대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KPMG, 탄소중립 산업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 발표(2026.08.05) - 삼성KPMG가 5일 발간한 '넷제로 경쟁의 시대, 탄소중립을 넘어 산업패권 경쟁으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환경 규제를 넘어 산업 주도권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넷제로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상,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탄소 배출량을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과 에너지 경쟁력 강화, 중국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진하며, 한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구체화해 첨단산업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망을 연계하는 전략을 전개 -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스코프3 배출량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는 가운데 저탄소 제품 생산 능력과 무탄소 전력 확보가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상했으며, 국내 기업도 배출량 감축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조달과 생산거점,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응 방향을 제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키움증권, 걸음 기부로 탄소 6만7000kg 감축(2026.08.10) - 키움증권이 탄소중립 ESG 실천을 위해 임직원과 일반 시민이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걸음을 기부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3'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히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총 1만1728명이 참여해 7억4028만보를 기부하는 성과로 소나무 1만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탄소 감축 효과를 실현 - 이번 캠페인의 걸음 수는 약 51만8221km 이동 거리에 해당하며 약 6만7750kg의 탄소 저감과 14만1707k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둬 30년생 소나무 약 1만265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수준이고, 임상옥 팀장과 김호준 과장이 각각 93만보를 기부해 최다 걸음을 기록하는 등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 - 캠페인 목표를 달성한 키움증권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걷기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친환경 활동인 동시에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되어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실천을 모아 탄소 감축 효과를 만드는 참여형 ESG 확산 추세 속에서 일상 속 걷기를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SKT, SK하이닉스 AI 투자법인 출자...재무 부담 최소화(2026.08.05) - 최동희 SKT AI전략기획실장이 5일 2026년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기반으로 AI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밸류체인의 핵심 역량 확보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 주도 AI 투자 법인에 SKT가 출자한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법인 참여가 자사 AIDC 사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발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SKT의 출자 방식은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른 분할 납부 구조로 설계돼 회사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AI 투자 법인을 통해 AIDC 사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AI 투자법인의 구체적인 경영 구상은 현재 경영진이 마련 중인 단계라는 설명을 함께 제시 - SKT는 AI 투자 법인 이사회 참여를 통해 AI 사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역량과 네트워킹을 지속 확보하는 등 시너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으로, 글로벌 AI 혁신 기업 투자와 AI 인프라 밸류체인 핵심 역량 확보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 투자 법인과 협력의 매개로 AIDC 사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AI 인프라 전략 추진을 전망
대학교	□ KAIST, AI 활용 탄소 포집·수소 저장 소재 설계 기술 개발(2026.08.11)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지한 교수 연구팀이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린 다공성 물질 안에서 기체를 결정처럼 규칙적으로 배열시키는 '가스 격자(Gas Lattice)' 현상을 찾아내고, 원하는 기체 배열을 만들어내는 다공성 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역설계해 탄소 포집과 수소 저장 효율을 높이는 맞춤형 소재 설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발표 - 연구팀은 미세한 구멍에 기체를 담거나 골라낼 수 있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활용해 단일 원소 기체인 제논(Xe)으로 현상을 확인했으며, 코발트 기반 다공성 물질(Co-CAU-36) 안에서 제논이 체심 입방 격자(BCC) 형태로 정렬되는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규명하고 AI를 활용해 원하는 기체 배열을 구현하는 새로운 다공성 구조를 직접 설계 - 기체 자체에 극한의 조건을 가해 결정화하는 방식과 달리 MOF의 미세한 기공이 일종의 틀 역할을 해 기체가 자리 잡을 위치를 유도하는 원리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어낸 성과이며, 서로 다른 기체를 섞었을 때 분리 현상도 확인되는 등 탄소는 더 잘 골라 잡고 수소는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맞춤형 소재 설계 기술로서 활용 가치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부산대-네이버클라우드, 동남권 AI 인프라 허브 협력(2026.08.05) - 부산대학교가 AI·클라우드 분야 선도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혁신 생태계 공동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체결하고,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남권 거점 AI 인프라 허브 조성을 본격화하며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과 인프라를 연계해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의 AI 혁신 가속화를 추진 - 양 기관은 동남권 거점 AI 인프라 허브 협력 체계 마련, AI 분야 공동연구·산학협력 과제 발굴, AI·클라우드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실무형 인재 양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을 함께 추진하며, 부산대는 허브 조성 사업 총괄과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맡고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환경 조성 협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구성 - 동남권 거점 AI 인프라 허브는 2030년까지 단계적 구축·운영을 목표로 GPU 기반 AI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를 지역 대학, 공공기관,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동남권 대표 AI 연구·교육 인프라로 조성될 계획이며, 지역 전략산업의 AI 전환 지원과 AI 전문인재 양성, 지역 정주 기반 강화를 주도하는 거점국립대학 역할 강화를 기대
해외	□ 중국 AI 기업, 가성비 전략 전환...이용자 가격 부담 확대(2026.08.11) - 가성비와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모델을 앞세워 주목받던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최근 연달아 이용자 가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과금 체계를 바꾸며, 토큰 사용량과 구독료를 대폭 줄이고 모델의 레시피 격인 가중치를 대중에게 공개해 오던 기존 전략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전개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출시 예정인 초대형 오픈웨이트 모델 '큐원 3.8-Max'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에 수익 일부를 배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할 계획이고, 문샷AI는 '키미 K3' 서비스 모델에 연 매출 2000만달러(약 282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 최대 30% 수준의 매출 배분을 요구했으며, 기업공개(IPO)를 앞둔 딥시크도 API 이용료의 상당한 가격 인상을 예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가중치를 공개해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자체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던 중국 AI 기업들의 전략이 수익화 단계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가 구독료를 지속 부담하도록 한 오픈AI·앤티트로픽 등 미국 빅테크의 폐쇄형 모델 개발 방식과 차별화됐던 중국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사업모델 전환을 시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